



## 가을의 전설 우리가 쓴다

### ■ KIA 'V10' 이끌 주역들

D-데이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한 KIA 타이거즈의 가을잔치가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시리즈에 초대 받은 선수는 26명. 우승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를 살펴본다.



**▲좌익수 김원섭 (우투좌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하면서 KIA 호타중추의 대표선수로 떠올랐다. 공수주에서 최고의 기량을 쌓은 김원섭은 이 중범이나 이용규와 호흡을 맞추며 최상의 테이블세터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중견수 이용규 (좌투좌타)**  
 재치있는 타격과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날쌘돌이'. 후반기 타격 슬럼프에 빠졌던 이용규가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테이블세터 역할의 성공여부에 따라 공격의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익수 이종범 (우투우타)**  
 팀이 9번째 우승을 했던 1997년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쥐었다. '야구천재' 이종범은 올 시즌 노장의 투혼으로 부상병이 즐비했던 외야를 호령했다. 큰 무대에 강한 이종범의 진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유격수 이현곤 (우투우타)**  
 김상현에게 3루를 내준 뒤 유격수 자리를 지키며 내야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타석에서는 2007년 타격왕 다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0.253의 타율과 2개의 홈런으로 부진했던 이현곤이 절치부심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2루수 안치홍 (우투우타)**  
 데뷔 첫 해 14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무서운 10대의 힘을 보여줬다. 큰 무대에 강한 겁없는 신인 안치홍은 최연소 올스타전 MVP 기록까지 세우며 신인왕을 향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다.

**▲3루수 김상현 (우투우타)**  
 2009시즌은 김상현의 해였다. 친정으로 돌아온 김상현은 만루홈런으로 신고식을 치른 뒤 36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127타점을 기록했다. '해결사'로 자리를 굳힌 김상현이 가을잔치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선발 윤석민 (우투우타)**  
 2005년 베이징 올림픽과 WBC를 통해 '국민투수'로 자리매김했지만 부상으로 아쉬운 한 해를 보냈다. 어깨 통증으로 재출전했던 윤석민은 한 달여만의 실전 피칭에서 합격을 받으며 선발로 마운드에 선다.

**▲1루수 최희섭 (좌투좌타)**  
 올 시즌 0.308의 타율, 33개의 홈런으로 100타점을 기록하며 팀 타선의 중심이 됐다. 한국무대 복귀 이유는 오직 하나 'KIA 타이거즈'의 우승이었다. 어느때보다 많은 땀방울을 흘렸던 최희섭이 우승을 향해 상대 마운드를 겨냥한다.

**▲볼펜 유동훈 (우투우타)**  
 한기주의 부진속에 마무리로 자리를 옮긴 유동훈은 싱커를 앞세워 팀의 뒷문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성실함으로 마운드를 지킨 유동훈이 볼펜의 핵심으로 한국시리즈에 도전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만큼 전력투구가 가능하다.

**▲포수 김상훈 (우투우타)**  
 주장으로 올 시즌 팀을 이끌어온 김상훈은 '포수 조련사' 조범현 감독의 지도 아래 든든한 안방마님으로 한 단계 기량이 성장했다. 젊은 투수들을 이끌 중요한 임무를 띠고 'V10'에 도전한다.

**▲지명타자 장성호 (좌투좌타)**  
 1996·97년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맛봤던 베테랑이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한층 매서워진 타격을 앞세워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투수 로페즈 (우투우타)**  
 공격적인 피칭과 위력적인 싱커로 한국 데뷔 무대에서 14승을 사냥했다.

**▲투수 이대진 (우투우타)**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3승을 낚았던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감독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투수 손영민 (우투우타)**  
 싱커를 장착하면서 노림수도 다양해졌고, 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승부로 KIA 볼펜을 책임진다.

**▲포수 차일목 (우투우타)**  
 지난해 김상훈이 부상으로 빠진 사이 KIA 안방을 지키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내야수 이재주 (우투우타)**  
 대타로 들어선 타석에서 20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대타출연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투수 양현중 (좌투우타)**  
 안정된 컨트롤로 12승을 올리며 좌완의 희망으로 거듭난 양현중이 선발로 대기하고 있다.

**▲투수 서재응 (우투우타)**  
 '컨트롤의 마법사'로 한국시리즈 출전의지가 강하다. 빅리그의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투수 한기주 (우투우타)**  
 부상과 부진으로 마무리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가을출격을 위해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내야수 김중국 (우투우타)**  
 '수비의 달인'. 한국시리즈 경험까지 갖춘 베테랑으로 탄탄한 수비 구축이라는 임무를 맡았다.

**▲외야수 나지완 (우투우타)**  
 데뷔 두 번째 시즌만에 23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우완 거포'의 탄생을 알렸다.

**▲투수 구름손 (우투우타)**  
 일본 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승부와 과감한 피칭이 구름손의 장점이다.

**▲투수 광정철 (우투우타)**  
 KIA 투수진 중 가장 위력적인 '돌직구'를 보유하고 있다. 마운드의 조커로 투입된다.

**▲투수 정운용 (좌투좌타)**  
 올 시즌 4번의 등판 경험이 전부지만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깜짝 합류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내야수 박기남 (우투우타)**  
 김상현과 함께 KIA에 세 등지를 틈 박기남은 내야 모든 포지션 소화 가능한 전천후 내야수다.

**▲외야수 최경환 (좌투좌타)**  
 홍세원의 손목부상으로 엔트리 합류. 적극적인 자세로 팀플레이에 활력을 더해줄 전망이다.

### ■ KIA 코칭스태프

**▲감독 조범현**  
 올 시즌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이끈 조 감독은 8월 한 달 20승을 찍어내며 정규시즌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생각하는 야구가 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큰 무대 경험이 부족한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시리즈에 도전해야 하는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SK 사령탑이던 2003년 한국시리즈에서 현대에 2승1패로 앞서다 3승4패로 역전패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다시한 번 재단하고 있다.  
**▲수석코치 김종모**  
 1992년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한국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타이거즈의 산중인으로 역사의 중심에 섰던 김종모 코치가 그라운드 또 다른 자리에서 12년만의 우승을 준비하고 있다.  
**▲투수코치 칸베 토시오**  
 KIA의 젊은 투수들을 조련하면서 마운드 왕국 재현에 큰 기틀을 마련했다.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젊은 투수들을 성장시키며 가을잔치의 숨은 조역이 됐다.

**▲타격코치 황병일**  
 올 시즌부터 1군 타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실익은 타격으로 빈타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힘든 출발을 했지만 자상함으로 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믿음과 신뢰의 야구를 강조하면서 극적인 타격쇼를 만들어냈다.  
**▲수비코치 김동재**  
 선수들의 거친 수비로 어느 누구보다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코치 중 하나다. 한국시리즈와 같은 큰 무대에서는 수비 실수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이도 역시 김동재 코치다.

**▲주루·작전코치 최태원**  
 3루를 지키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최태원 코치는 기동력의 싸움에 승부수를 던졌다. KIA의 숨겨진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초반 기선 제압을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배터리코치 장재홍**  
 조범현 감독의 데이터 야구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포수와 투수들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안정된 경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